三〇、	과테말라	一一	〃
三一、	카나다	一二	유화六·석조및기타六
三二、	오스트라리아	四	오스트리아원주민 그림 장신구
三三、	인도	一五	불교미술품
三四、	타이	三	〃
三五、	네팔	一三	탱화五·불상一〇·기타八
三六、	멕시코、과테말라、혼두라스、에크아돌、파나마 우르과이、콜롬비아	三八	종교유물·조각 유화

마、保險加入과 保護關係

전시문화재 一二점에 對한 보험은 六八年 八月부터 六八年 一二月까지 五個月간 三〇〇、〇〇〇달라의 전시중과 수송시 까지의 보험에 가입되였고 전시중의 보호관계도 멕시코 국립 경찰과 군인 및 비밀 경찰이 무장하여 각국 유물진열장소에 각 二인식 고정배치되여 경비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바、展示反響

六八年 一〇月 七日 午後 五時 三〇分에 개관할때 멕시코 올림픽 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하여 국제 올림픽위원장과 각국 대사와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 및 관계관들이 참관하였으며 特히 현지주재 최경록대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인사와 기자들이 참석하여 취재하였고 멕시코 올림픽 위원회에서 특별초청으로 오신 국립박물관장 김재원박사께서는 직접 각국인사들에게 우리고려청자의 학술적 가치를 설명하여 우리 고려청자의 우수성과 고귀함을 인식케 하였다。

또한 전시기간중에는 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한 많은 외국인과 멕시코 국민들의 많은 관람객이 내도하여 관람하였으며 우리의 고려청자 진열장소에 이르러서는 굉장한 칭찬과 호감의 뜻을 나타내었었다。 그리고 一九六八年 九月 二四日 현지 주재대사인 최경록대사의 주최로 열린 리셉숀에는 멕시코 올림픽大會 文化행사 담당고위인사와 기자들이 참석하여 고려청자의 호평을 받았고 멕시코시에서 발행되는 六八年 九月 二六日字 "The News"紙에 六단 기사로 韓國民俗무용단과 같이 고려청자에 대한 대대적인 것으로 기사화되여 보도되었다。 또 一九六八年 一一月 一五日에는 멕시코 국영테레비죤방송에서 생방송을 하였다。

그리고 멕시코는 우리 文化가 제대로 소개되어있지 않은 반면에 中國이나 日本에 대하여 과대평가 또는 인식하고 있어 韓國文化는 중국문화에 예속되여 있는 줄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문화의 감화를 많이 받았을 줄로 알고 있으며 우리 文化와 우리나라을 재인식케 되였다고 본다。 특히 한국 연구전문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동양연구자가 몇명있을 뿐이라는 말도 들었으며 한국문화재를 직접 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우리의 고려청자 전시를 계기로 이들은 우리문화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대표명하였으며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중남미 일대에 한국문화와 문화재를 재인식시키는데 효시적 역활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한가지 불행한 것은 본전시기간중 六八年 一〇月 二二日 午後七時 四五分에 고려청자 전시장소에서 서독 민속예술단원으로 온 마리나 이헤레 요하나(Marinne Ihle Johanna)서독부인이 관람하다가 너머지면서 四二一호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 진열된 진열장을 건드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병의 뚜껑을 파손시켜 전시종료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걷으지 못한 것이 못내 한이였다。

※ 본 사고에 對하여는 本人이 귀국할때 현지대사관에 벽상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위임한 후 본인은 六八年 一二月 二七日 나머지 전시품을 포장하여 KLM항공기편으로 귀국반송조치를 한후 귀국하였다。

法住寺通信 (四)

金東賢

基壇의 基礎工事가 完了된 後 地臺石으로부터 築石工事는 進行되어

十一月 二十四日 甲石 一部를 除外한 上層基壇의 築石이 完了됨에 따라 二十五日 十四時 舍利 奉安式은 三歸儀禮에 依據 擧行되었다。奉安된 舍利具의 內容은 앞서 寺刹側과 文化財委側의 協議로 決定된 바 있다。協議된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一) 銀製舍利壺 一點(金製로 新造함)

(二) 錦緞 褓 一式 (新造함)

(三) 銅板 五枚 (銅板으로 新造하고 塔誌銘은 原狀과 同一하게 刻銘함)

(四) 靑銅盒 및 綠色 瑠璃瓶 破片 一式 (奉安치 않음)

이 외에 大理石製 舍利盒을 넣을 銀製 方形箱子를 新造하고 그 表面에는 重修經緯를 刻銘하였고 外函으로 方形 푸라스틱製 箱子를 만들어 舍利具 一式을 넣었다。交替 奉安된 模造品은 原狀과 同一하게 만들었으며 交替된 舊舍利裝置는 寺刹側의 希望에 따라 東國大博物館에 一旦保管키로 하였다。

舍利具가 心礎에 奉安된 후 木部의 組立은 着手되었다。木部組立과 併進하여 下成基壇石의 組立도 착착 進行되었다。丹靑의 文樣模寫는 解體된 部材에서 選擇하여 部材別로 完結하였으며 특히 三層 天井板은 全體가 模寫되었다。

立組과 治木、實測이 進行되는 중에 甚한 酷寒이 닥쳐 不得已 工事를 中止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一九六九年 一月 十六日 關係者全員이 철수하였다。이때의 工程은 五層 軸部까지 되었고 이에 따른 部材의 實測 및 撮影 摺本等도 五層의 包材上部만을 除外하고는 거의 完結되었다。撤收 二個月 後 다시 作業이 始作되어 五層拱包로부터 組立되고 한쪽에서는 春舌 및 椽木 扇子椽의 마름질이 併行되었다。春舌用材는 이미 六八年度에 官給으로 購入된 뉴질랜드 松이었으나 材質이나 强度가 春舌用材로서는 不適한 것이여서 그동안 交替할 수 있는 方案策을 數次에 걸쳐 道當局에 建議한 바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중 多幸히 國防部의 作戰計劃의 일환으로 設置된 헬기 場內의 寺刹林에서 選用할 수 있게 되었다。

木部工事는 組立이 시작된 후 約 百三十餘日만에 完成하게 되어 工程上의 一次竣工을 六月 五日로 막음하였다。木工事 施工중에 重修上樑式을 (五月 二十一日)갖었다。上樑文은 崔淳雨 指導委員이 撰하고 漢紙에 墨書되어 五層 東便 內目 道里 下面 中央에 封合되었다。

二次工事는 蓋瓦工事로부터 雜工事까지이며 이들 工事는 二次 契約이 決定되는대로 곧 着手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현재까지의 工程이었다。 끝으로 部材 實測 調査중에 發見된 銘文資料를 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二層 道里 바닥面

『東中슈채』『슈채七쐽찌』『北九七尺』『六七尺』『北八업씨東』『二全口』

四層 道里 바닥面

『四층외목八尺』『四층五』『四층全二』『五層殿四층의목八尺』『四층五』『三층슈채』『四층四』『四층全一』『東』

이들 銘文은 전부 道里에 墨書되었고 層別과 名稱、位置、尺數를 表示하고 있다。「슈채」「쐽찌」「업씨」等은 현재 建築用語로 使用되고 있지는 않으나 當時의 部材 名稱이 아닌가 생각되는 用語이다。특히 尺數를 記錄한 點은 用尺 硏究上 大端히 重要한 資料라 할 수 있다。(用尺 풀이는 차후 刊行豫定인 報告書에 發表할 것임)

이외에 五層 南西 隅包중 一部材에 「乙丑六月」이라 기록된 것을 보면 五層 包材는 上樑文의 「丙寅六月」보다 만 一年前에 治材되었던지 아니면 조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 相輪部의 覆鉢 東南 表面에 陽刻의 銘文 三十八字가 있었다。 그 內容을 보면 아래와 같다。

□□□ 金□

□□

大化主 紁□

□□□ 匆

大施主 □□

大□□ □

大施主 李□□ 造
成
□□ 年五月 造

이들 銘文은 字徑 一·三寸 內外이다。造成 年代가 나와 있으나 磨滅로 因한 脫落으로 年代의 判讀이 어려워 遺憾이다。

新羅三山 第三次調査略報

鄭 永 鎬

新羅三山學術調査團의 現地踏査는 今番이 第三次로서 지난 五月一日부터 十日間 全委員의 參加로 實施되었다。

이번 調査의 目的地는 月城郡 斷石山과 淸道地區였는데 當初부터 調査團을 二個班으로 편성하여 出發했다。

斷石山調査班은 黃壽永 洪思俊委員을 비롯 申榮勳 金東賢兩氏가 現場에 머무르면서 上人岩 神仙寺의 石窟寺院址 發見과 佛像 十軀및 諸遺構를 實測 拓本하는 作業이 進行되고 한편 이곳이 金庾信將軍을 中心한 花郎大道場이었음을 確認하는등 多大한 成果를 올렸다。

淸道地區는 秦弘燮 李基白 金英夏 鄭永鎬委員과 石宙善 尹容鎭 金和英同學諸氏 그리고 陸軍에서 陸士의 李康七 許善道 兩氏가 合勢하였고 途中에는 團長 金庠基博士께서 參加하였는바 一行은 上人岩을 中心한 斷石山과 富山城一帶의 調査를 二日間 實施하였으며 아울러 永川菁堤碑를 再調하여 새로히 銘文을 判讀하였다。淸道는 新羅三山의 하나인 穴禮가 位置한 곳이라 하여 着手하게 된 것인데 筆者는 始終 이 地域을 담당하였기에 그 調査內容을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淸道邑에서 北쪽으로 竹羅洞丘陵에 吠城이란 土城의 遺地가 있어 現在도 三國期의 土器片이 蒐集된다。이 城은 古伊西國의 本據이었던 現伊西面의 東方에 자리잡고 있어서 역시 伊西小國의 鎭山에 築造되었던 防禦城 役割을 하였음에는 틀림없다。지금 이 城內에는 餠寺가 있어서 그에 따른 諸附屬建物이 遺存하며 嘉慶年間의 幀畫도 數幅 奉安되어 現寺刹의 事蹟을 짐작하게 한다。

淸道郡內는 거의 山岳地帶로 四方에 高峻한 峯우리가 병풍처럼 둘려 있어 그 속에는 많은 遺蹟遺物이 있을 것인즉 今次는 邑內에서 西北쪽으로 솟은 琵瑟山만을 調査 하였다。琵瑟山의 現存 寺刹로는 湧泉寺가 제일 큰 편인데 現在의 建物은 모두 朝鮮時代 後期作이며 大雄殿 前庭의 三層塔이 高麗時代의 造成으로 推定되었다。이 石塔은 二層基壇上에 塔身을 놓았는데 下層基壇 面石에는 各面 二區式의 眼象이 細長하게 陰刻되고 上層基壇에는 各面에 兩隅柱와 一擎柱가 整然히 刻出되었다。倒置된 部材를 收拾하다가 初層身石 中央에 方形舍利孔이 施工된 것을 調査하였는바 七㎝×七·五㎝ 深 一〇·五㎝로서 아주 小形이었다。各屋蓋石의 받침은 三段式이고 屋身받침은 二段式이며 落水面은 重厚하여 麗代의 樣式임을 곧 알 수 있다。이 寺刹에서 特히 注目되는 것은 石造浮屠인데 西松堂最柏大師塔을 비롯하여 모두 六基로서 全高 二·五m式이다 朝鮮時代의 石鍾型浮屠이나 相輪部는 數層의 寶輪위에 寶珠를 올렸고 基壇部는 上下臺에 仰伏蓮이 整然하게 彫飾되어서 이러한 特殊한 樣式은 浮屠彫刻 및 樣式史硏究에 貴重한 資料가 된다。그리고 湧泉寺 於口에 「湧泉寺洞下道路修治功表石」 一座가 遺存하는바 雍正 三年의(一七二五)建立으로 道路修治關係 記錄으로는 처음보는 珍貴한 金石文이라 하겠다。

琵瑟山 頂上에 寺址가 있어 三層石塔과 佛座臺가 遺存하는데 石塔은 完全히 倒壞되어 各部材가 散亂하고 佛座는 下臺石만이 殘存한다。石塔은 新羅式으로 單層基壇이며 三層屋身一石만 찾으면 完全한 復原이 可能하다。佛座는 方形地臺石과 伏蓮石이 同一石으로 造成되었으며 一邊長 一、五m의 巨大한 臺座라 하겠다。復葉八辨과 上面 圓座等의 手法이 新羅時代의 作風으로 推定된다。이곳에는 法堂址가 있고 礎石이 遺存하나 初創時의 遺蹟은 아니며 巨大한 石築(長 三五m 高 七m)만은 羅代의 築造임이 틀림 없다。

琵瑟山 東南中腹에 位置한 水月洞의 庵址에서는 朝鮮時代 後期의 石